

중국 중학생의 배려심과 성별, 성역할정체감 및 부모의 애정적 양육행동 간의 관계

임수형·김희화*·공유경**

중국 천진사범대학교·부산대학교 아동가족학과*·부산대학교 아동가족학과**

Relationships Between Gender, Gender Role Identity, Parent's Affectionate Behaviors and Care in Chinese Middle School Students

Lin, Shu Xin · Kim, Hee Haw* · Kong, You Kyoung**

Tianjin Normal University, Tianjin, China

Dept. of Child Development and Family Studies · Research Institute of Ecology for the Elderly,

Pusan National Univ., Busan, Korea*

Dept. of Child Development and Family Studies, Pusan National Univ., Busan, Korea**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relationships between gender, gender role identity, parents' affectionate behaviors and care in Chinese middle school students. Also, this study examines the differences in care among Chinese middle school students with respect to parent's socio-demographic variables. The subjects were 478 3rd grade middle school students in Tianjin, China. The major findings were as follows.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care of Chinese middle school students with respect to mother's job and age. In other words, a higher level of care of Chinese middle school students was shown in students who had an unemployed mother, labour mother or mothers of 46 years and over. As result of examining the main effects of gender, gender role identity and parent's affectionate behaviors caring for Chinese middle school students, there were significant with respect to gender role identity and parents' affectionate behaviors. Masculinity, femininity and androgyny identity demonstrated a higher care than undifferentiated identity. Also, a higher level of care was associated with higher parents' affectionate behaviors. There were interaction effects caused by gender and gender role identity in care for Chinese middle school students. Also, there were interaction effects caused by gender and parent's affectionate behaviors on the nature of care for Chinese middle school students.

본 논문은 2008년도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의 일부임.

이 논문은 부산대학교 자유과제 학술연구비(2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접수일: 2010년 3월 31일 심사일: 2010년 4월 9일 게재확정일: 2010년 5월 31일

Corresponding Author: Kim, Hee Haw Tel: 82-51-510-2832

e-mail: hwakim@pusan.ac.kr

Key words: Chinese middle school students, gender, gender role identity, parent's affectionate behaviors, care

I. 서론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주민의 수가 100만 명을 넘으면서 세계화 추세에 맞춘 개인의 다문화적 적응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요즘, 지리적으로 근접하고 한국과의 교류도 활발해진 중국인의 생활실태나 의식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국내 거주 외국인 주민의 56.5%가 중국 국적을 가지고 있고(행정안전부 2009) 한·중 수교로 한국에 거주하는 중국 노동자, 이민자 및 유학생이 늘어나면서 이들의 적응을 돕기 위해 중국의 사회문화적 환경과 개인의 발달 과정에 대한 이해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중국사회는 1978년 실시된 개혁 개방 이래, 과학기술 분야에서 주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었고 사회주의 경제체제에서 시장 경제체제로 전환되면서 물질생활에서 풍요로움을 경험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변화 속에서 중국인들은 공동체 중심적인 전통적 가치관 보다는 개성과 개인의 자유를 강조하는 개인중심적인 가치관을 선호하게 되었다(김경신·이선미 2007).

중국은 1970년대부터 ‘하나가 바람직하고 많아야 둘’이라는 출산정책을 전개하면서 ‘한자녀 갖기’ 운동이 장기적으로 실행되었다. 중국 정부의 한자녀 정책으로 아이를 하나밖에 낳을 수 없는 부모들은 자녀를 특별하고 귀하게 키워야겠다는 의지가 강하여 자신은 잊은 채 오로지 자녀를 위해 바쁘게 돈을 버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는데 중국신문사는 ‘자녀의 노예’란 뜻의 하이누(孩奴)현상으로 이 같은 세태를 비판하기도 했다(홍제성 2010). 이와 같이 세계 제1의 인구대국인 중국의 산아감소정책은 현재 대부분의 중국 가정에서 한 명의 자녀만을 양육하도록 만들었고(문숙재·조성은 1999) 이로 인해 아동의 지위는 높아졌으나(이사라·박혜원 2005) 독자, 독녀에 대한 부모의 과잉사랑으로 인하여 자녀들의 올바른 성장이 저해될 가능성이 높다(구자순 1990)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낳기도 하였다. 특히 청소년기는

급격한 전인격적 변화를 겪는 시기로 신체적, 인지적, 정서적 변화에 따른 새로운 역할 기대를 갖고 자아정체성을 확립해 나가는 시기이므로 오늘날 중국 청소년들의 도덕적 가치관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도덕성을 구성하는 덕목에는 정직, 정의로움, 준법정신, 생명존중, 인권존중, 타인배려, 신의, 책임의식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요소 중에서 오늘날 청소년들에게 특히 요구되는 것은 타인에 대한 배려심이다(김소영 2005). 배려심은 지나친 개인주의로 인한 개인 간의 단절이나 고립, 상호존중의 부재 등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인정받고 있다(박병춘 1999). 인간은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회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므로 상호의존적인 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마음을 써주는 배려의 자세가 필요하다.

중국의 초, 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타인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上海社會研究院 1995)에서 ‘다른 사람을 위하겠다’는 문항에 대해 초등학생은 60%가 ‘그렇다’에 응답한 반면, 중학생은 34%, 고등학생은 20%만이 그렇다고 응답했다. 이와 같이 중국의 초등학생들은 나보다 남을 위하겠다는 가치관이 주류를 이루는 반면에 중학생, 고등학생들은 타인에 대한 배려가 전체의 절반 이하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다. 따라서 배려심의 급격한 감소가 이루어지는 중국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배려심 실태 및 배려심 관련 변인들을 밝힘으로써 개인주의 가치관으로 인해 나타나는 문제의 대안으로 여겨지는 배려심 발달을 장려할 수 있다.

영어의 ‘care’를 우리말로 번역하면 ‘배려’라는 말과 함께 ‘보살핌’이란 말로 쓰이고 있다. ‘배려란 타인을 보살피다’라는 뜻으로(이수연 2001) 국립국어연구원에서 펴낸 표준국어대사전(1999)에서는 배려심을 ‘타인을 도와주거나 보살피 주려고 마음을 쓰는 것’이라고 한다. ‘care’에 관한 국내의 연구들은 ‘배려지향적 도덕성’ 혹은 ‘보살핌

윤리' 등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타인에 대한 염려, 걱정, 관심, 입장 고려 등 타인을 도와주거나 보살펴주려는 마음을 배려심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이러한 배려심에 관한 연구에서 가장 열띤 쟁점 중의 하나는 성별 차이에 관한 것이다. Gilligan(1982)이 여성의 도덕성을 이해할 수 있는 새로운 기준으로 배려의 도덕성을 제시한 이래, 많은 연구자들(강승호·고인자 2003; 김소영 2005; 이나현 1997; 정미연 2000; 정옥분·곽경화 2003; Walker 1989)이 배려심에 관한 성별 차이를 연구하기 시작하였으나 일치된 결과를 보고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배려심의 차이를 살펴본 몇몇 연구(강승호·고인자 2003; 이나현 1997; 정미연 2000)들은 남학생보다 여학생의 배려심이 더 높다고 하였으나 또 다른 연구들(김소영 2005; 정옥분·곽경화 2003; Walker 1989)은 남학생과 여학생의 배려심에 차이가 없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청소년의 성별과 배려심 간의 관계는 성별과 함께 배려심과 관련 있는 다른 변인을 고려한 연구를 통해 명확하게 이해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성별에 따른 배려심의 차이에 대한 관심과 대등하게 성역할정체감에 따른 배려심의 차이에 대한 학자들의 관심 역시 높다(곽경화·정옥분 2000; 이나현 1997; 이재영 2007; 정옥분·곽경화 2003; Söchtig et al. 1994). 즉, 배려나 보호, 보살핌 등의 속성은 남성, 여성의 생물학적 성별에서 기인된 것이기 보다는 남성성, 여성성으로 설명되는 성역할정체감에서의 성격특성으로 보는 것이 더 설득력 있다는 견해이다. 특히 청소년기는 성유형화의 특성이 절정에 달하여 성역할에서의 경직성이 증가되는 시기이므로(Pleck 1975) 청소년의 성역할정체감 유형은 배려심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론된다.

전통적인 성역할 관점에서는 남성성과 여성성을 단일차원의 연속선상에 있는 양극단이라고 가정하고 성별에 따라 고정관념화된 성역할을 정상적이고 바람직한 것으로 간주하였다. 그러나 1970년대에 성역할정체감 연구를 발전시킨 학자들은 전통적인 관점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양성적 시각이다. 이 관점에서 볼 때 사람은 누구나 타고난 성별에 관계없이 여성적인 특성과 남성적인 특성을 공유할 수 있으며 남자든, 여자든 양성성을 바람직한 성격으로 간주한다(정진경 1990). 이러한 성역할정체감과 배려심 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들을 보면, Söchtig 등(1994)은 여성적 성역할정체감 집단이 보살핌 지향의 도덕성이 가장 높다고 보고 하였고, 이재영(2007)은 집단주의사회에서 강조되는 조화성, 배려성, 협동성과 같은 특성은 여성성과 관련이 깊다고 하였다. 그러나 몇몇 연구들(곽경화·정옥분 2000; 이나현 1997)에서는 배려심에 대한 성역할정체감의 설명력이 미비하였다.

Gilligan(1982)의 견해에서 여성적 특성으로 간주되고 있는 배려심은 성별에 따라 일관된 차이를 나타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 특성인 성역할정체감에 따라서도 일관된 차이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배려심에 대한 성별과 성역할정체감의 주효과 및 상호작용효과를 함께 밝히고자 한다.

한편, 청소년의 인성발달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사람은 부모이다. 부모가 어떤 양육행동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자녀의 사회적, 정서적, 지적 발달이 달라진다. 부모가 애정적이고 수용적인 태도로 일관성 있게 대할 때, 청소년들은 자신감을 갖게 되고 사회적 능력이 발달하여 상냥하고 명랑하며 정서적으로 안정된다(Hurlock 1978). 즉, 부모가 자녀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격려하는 태도를 보일 때, 자녀는 부모와의 관계에서 긍정적인 유대감을 형성하고 이는 부모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계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지각하게 되어 다른 사람을 위협적인 존재로 인식하지 않고 호의적으로 대할 수 있도록 해준다. 그러므로 부모의 애정적 양육행동은 청소년의 배려심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부모가 자녀에게 애정적이고 수용적일 때 자녀의 도덕성 발달 수준도 높고(윤연주 2004; 이상우 1989; 최시원 1997; 劉文·楊麗珠 2004) 타인에 대한 배려도 많은 것(김소영 2005)으로 보고된다. 한편, Gilligan(1982)은 배려심에서의 성별 차이는

부모의 양육환경에서의 차이에서 기인한다고 보았다. 즉 남아와 여아는 부모와의 인간관계를 상이하게 경험하기 때문에 남아는 정의의 도덕성을 갖게 되는 반면, 여아는 배려의 도덕성을 더 강하게 지니게 된다고 하였다. 이는 부모의 양육행동과 청소년의 배려심 간의 관계는 성별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함을 제시하는 바, 중국 중학생의 배려심 관련변인으로 부모의 애정적 양육행동의 주효과 및 성별과의 상호작용효과를 함께 살펴보아야 함을 의미한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중국 청소년의 사회인구학적 배경에 따른 배려심의 차이를 살펴보고, 배려심 관련 변인으로 성별, 성역할정체감 및 부모의 애정적 양육행동을 선정하여 이들 변인들의 배려심에 대한 주효과 및 상호작용효과를 밝히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해 중국 청소년의 배려심 장려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한국인의 중국인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며 한국에 거주하는 중국인의 적응을 돕기 위한 방향 모색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 중학생의 배려심은 부모의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가?

둘째, 중국 중학생의 배려심은 성별과 성역할정체감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가?

셋째, 중국 중학생의 배려심은 성별과 부모의 애정적 양육행동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중국 천진시에 거주하는 중학교 3학년 478명이었다. 천진시는 북경, 상해와 함께 중국의 3대 직할시 가운데 하나로 중국 남북 육상교통의 중심지이면서 북부 최대의 항구도시로 해륙 교통의 중심지이다. 또한 천진시는 현대사에서 강제 개방을 상징하는 곳으로 주요 공업기지이며 국제무역도시로써 활기를 띠고 있다.

연구대상 표집을 위해 중국 천진시의 1개 중학교를 임의 선정하여 3학년 11개 학급의 남·여

학생 505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회수된 질문지 중 불성실한 질문지를 제외한 478부가 최종 분석 자료에 사용되었다.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Table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N=478)

	Variables	N	%
Gender	boy	220	46.0
	girl	258	54.0
Father age	under 40	178	37.2
	41~45	242	50.6
	46 over	58	12.1
Mother age	under 40	260	54.4
	41~45	165	34.5
	46 over	53	11.1
Father education	under middle school	128	26.8
	high school	186	38.9
	university over	164	34.3
Mother education	under middle school	140	29.3
	high school	186	38.9
	university over	152	31.8
Income	under 2500 yuan	141	29.5
	2500~3500 yuan	172	36.0
	3500 yuan over	165	34.5

2. 측정도구

1) 배려심

중국 청소년의 배려심을 측정하기 위하여 김소영(2005)의 연구에서 사용한 배려심 척도를 본 연구대상에 맞도록 중국어로 번안하여 수정해서 사용하였다. 이 때 중국어와 한국어에 능통한 중국인 유학생 2명이 중국어로 척도를 번안하였다. 김소영(2005)의 척도는 타인심정고려, 양보심, 염려의 3개 영역 총 4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예비조사를 통해서 내적 일관성이 떨어지거나 편중된 응답을 보인 문항을 제거한 나머지 23문항으로 재구성하였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 반응케 하였고, 점수범위는 23점~115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배려심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척도의 신뢰도 계수 Cronbach α 는 .81이었다.

2) 성역할정체감

중국 청소년의 성역할정체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정진경(1990)의 한국형 성역할 검사에서 남성성, 여성성과 관련된 40문항을 선정하여 한국어와 중국어에 능통한 중국인 유학생 2명이 중국어로 번안하여 수정해서 사용하였다. 그러나 정진경(1990)의 척도는 한국 사회의 전형적인 성역할 고정 관념을 기초로 작성되었기 때문에 중국 문화에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본 연구에서는 정진경(1990)의 척도 문항에 대해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중국사회에 적합한 성역할 기준을 적용하고자 시도하였다. 예비조사는 한국에 유학중인 거주 기간 1년 이내의 중국인 대학생들을 대상(남자 30명, 여자 30명)으로 중국 사회의 남성 혹은 여성에게 각각의 문항과 같은 특징을 가지는 것이 어느 정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 1점에서 ‘매우 바람직하다’ 5점까지 평가하도록 하였다. 각각의 문항에 대해 남녀 응답자 모두 여성에게 보다는 남성에게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한 문항들은 남성성 문항(10문항)으로, 남녀 응답자 모두 남성에게 보다는 여성에게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한 문항들은 여성성 문항(9문항)으로 간주하였다. 한편, 남녀 응답자 중에서 한쪽만이 남성 혹은 여성에게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한 문항들과 남성 혹은 여성에게 바람직한 정도에 차이가 없다고 판단한 문항들은 제외시켰다. 남성성 척도의 신뢰도 계수 Cronbach α 는 .67이었고 여성성 척도의 신뢰도 계수 Cronbach α 는 .73이었다.

성역할정체감 유형은 남성성, 여성성 점수의 평균을 기준으로 남성성 점수가 평균 이상이고 여성성 점수가 평균 이하이면 남성성 유형, 여성성 점수가 평균 이상이고 남성성 점수가 평균 이하이면 여성성 유형, 남성성, 여성성 점수 모두 평균보다 높으면 양성성 유형, 두 점수가 모두 평균보다 낮으면 미분화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3) 애정적 양육행동

부모의 애정적 양육행동은 안현지(1999)의 연구에서 사용한 부모의 양육행동 척도 문항 중 애정적 양육행동에 관한 문항만을 선정하여 한국어와 중국어에 능통한 중국인 유학생 2명이 중국어로 번안하여 수정해서 사용하였다. 안현지(1999)의 척도는 애정, 적대, 자율, 통제의 네 영역 각 14문항씩 구성되어 있다. 이 중 애정적 양육행동 하위척도를 본 연구에 사용했으며 예비조사를 거쳐 편중된 응답을 보인 문항을 제거한 나머지 9문항으로 재구성하였다. 각 문항은 중국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애정적 양육행동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로 반응케 하였고, 점수범위는 9점~45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가 자녀를 애정적으로 양육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척도의 신뢰도 계수 Cronbach α 는 .86이었다.

3. 자료수집 절차 및 자료분석

본 연구의 자료는 2회의 예비조사와 1회의 본 조사를 통해 수집되었다.

1차 예비조사는 중국사회에 적합한 성역할 기준을 검토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남성성, 여성성 문항 선정 작업을 위하여 부산시에 소재한 대학교들에 유학중인 국내 거주 기간 1년 이내의 중국인 대학생 60명을 대상으로 질문지를 배부하고 회수하였다.

2차 예비조사는 한국에서 개발된 본 척도의 중국 청소년 적용가능성 여부를 검토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질문지 문항에 대한 이해, 척도 구성상의 문제점과 척도의 신뢰도 및 타당도를 알아보기 위해 중국 천진시에 소재한 중학교 남·여 청소년 202명을 대상으로 질문지를 배부하였다.

본조사는 중국의 천진시에 소재한 1개 중학교 3학년 11개 학급의 남·여 청소년 505명이었다. 회수된 질문지 중 불성실한 질문지를 제외한 478부(회수율 94.65%)를 최종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들은 SPSSWIN 14.0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되었다. 연구에서 사용된 각 척도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Cronbach α 계수를 산출하였고 연구문제에 따른 자료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중국 중학생의 배려심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F-test를 실시하였고 사후검증으로 Scheffé test($p < .05$)를

실시하였다. 중국 중학생의 배려심에 대한 성별과 성역할정체감, 성별과 부모의 애정적 양육행동의 주효과 및 상호작용효과를 살펴보기 위하여 이원변량분석(two-way ANOVA)을 실시하였다. 이 때 두 요인 간의 상호작용이 있을 경우에는 단순 주효과 검증을 위해 F-test와 t-test를 실시하였다.

III. 연구결과

1. 부모의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중국 중학생의 배려심 정도

부모의 사회인구학적 변인인 직업, 학력, 연령,

월평균 소득에 따라 중국 중학생의 배려심이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평균차 검증을 실시한 결과 Table 2와 같이 나타났다.

Table 2에서 중국 중학생의 배려심은 아버지의 직업, 부모의 학력, 아버지의 연령 및 월평균 소득에 따른 차이가 없었고, 어머니의 직업(F=4.71, p<.001) 및 연령(F=4.15, p<.05)에 따른 차이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어머니의 직업이 무직(M=89.29)일 때가 전문직(M=81.82) 및 사무직(M=80.25)일 때 보다 타인에 대한 배려심이 더 많았고, 노무직(M=87.74)일 때가 사무직(M=80.25)일 때 보다 타인에 대한 배려심이 더 많았다. 어머니의 연령은 46세 이상인 집단(M=88.11)이 40

Table 2. Difference on the care in Chinese middle school students according to parent's socio-demographic variables

	Variables	M	SD	F	S
Father job	unemployed (n=13)	77.92	16.70	.78	
	self-employed (n=144)	83.80	14.04		
	professional (n=94)	84.51	13.47		
	administrative (n=83)	83.60	9.21		
	clerical (n=105)	82.88	11.43		
	labour (n=39)	84.61	8.13		
Mather job	unemployed (n=37)	89.29	13.04	4.71***	a
	self-employed (n=134)	84.90	11.87		abc
	professional (n=112)	81.82	12.42		bc
	administrative (n=65)	83.95	11.82		abc
	clerical (n=99)	80.25	13.10		c
	labour (n=31)	87.74	5.48		ab
Father education	under middle school (n=128)	82.05	11.41	1.46	
	high school (n=186)	84.35	12.32		
	university over (n=164)	83.99	12.88		
Mother education	under middle school (n=140)	84.77	12.04	1.05	
	high school (n=186)	82.78	14.25		
	university over(n=152)	83.55	9.65		
Father age	under 40 (n=178)	84.20	14.31	3.53	
	41~45 (n=242)	82.38	10.98		
	46 over (n= 58)	86.91	10.03		
Mother age	under 40 (n=260)	82.83	13.54	4.15*	b
	41~45 (n=165)	83.40	10.61		ab
	46 over (n= 53)	88.11	9.71		a
Income	under 2500 yuan (n=141)	83.99	13.02	.84	
	2500~3500 yuan (n=172)	84.25	12.41		
	3500 yuan over (n=165)	82.61	11.51		

*p<.05 ***p<.001

세 이하인 집단(M=82.83)보다 타인에 대한 배려심이 더 많았다.

2. 중국 중학생의 배려심에 대한 성별과 성역할정체감의 상호작용효과

중국 중학생의 배려심에 대한 성별과 성역할정체감의 상호작용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청소년의 배려심을 종속변인으로 두고 성별과 성역할정체감을 독립변인으로 한 이원변량분석(two-way ANOVA)을 실시하였다.

중국 중학생의 성별과 성역할정체감에 따른 배려심의 평균치는 Table 3과 같고, 이원변량분석 결과는 Table 4와 같이 나타났다. Table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국 중학생의 배려심에 대한 성별의 주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으나 성역할정체감(F=24.37, p<.001)의 주효과는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성역할정체감이 양성성, 여성성, 남성성인 집단이 미분화인 집단보다 배려심이 더

많음을 의미한다.

중국 중학생의 배려심에 대한 성별과 성역할정체감의 상호작용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성별과 성역할정체감의 상호작용효과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Fig. 1과 같다. Fig. 1에서 상호작용효과에 대한 구체적인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단순 주효과 검증을 한 결과 남학생(F=8.73, p<.001)과 여학생(F=18.79, p<.001) 모두 성역할정체감에 따른 배려심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학생의 경우 성역할정체감이 미분화일 때보다 양성성일 때 타인에 대해 더 많이 배려하고, 여학생의 경우 성역할정체감이 미분화일 때보다 남성성, 양성성, 여성성일 때 타인에 대해 더 많이 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중국 중학생의 배려심에 대한 성별과 부모의 애정적 양육행동의 상호작용효과
중국 중학생의 배려심에 대한 성별과 부모의

Table 3. Mean of the care in Chinese middle school students according to the gender and gender role identity

Gender role identity	Gender								
	boy			girl			total		
	M	SD	N	M	SD	N	M	SD	N
masculinity	83.18	9.00	64	88.33	8.34	42	85.22	9.07	106
femininity	84.00	6.35	20	86.31	5.64	64	85.76	5.86	84
androgyny	87.66	10.22	72	87.26	15.43	83	87.45	13.22	155
undifferentiated	79.50	9.33	64	73.71	15.99	69	76.49	13.48	133
total	83.65	9.80	220	83.57	14.09	258	83.61	12.29	478

Table 4. Two-way ANOVA of the care in Chinese middle school students according to the gender and gender role identity

Variables	df	Sum of squares	Mean square	F
Gender(A)	1	9.96	9.96	.07
Gender role identity(B)	3	9423.42	3141.14	24.37***
A*B	3	1856.53	618.84	4.80**
Error	470	60569.20	128.87	

p<.01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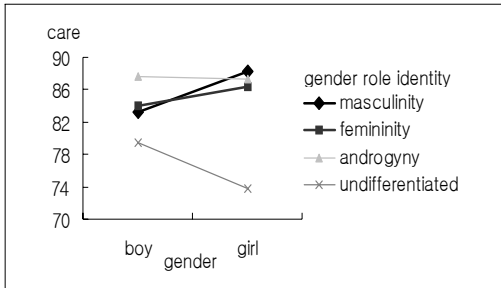


Fig. 1. Interaction effect of the care in Chinese middle school students according to the gender and gender role identity

애정적 양육행동의 상호작용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청소년의 배려심을 종속변인으로 두고 성별과 부모의 애정적 양육행동을 독립변인으로 한 이원변량분석(two-way ANOVA)을 실시하였다. 분석에 앞서 부모의 애정적 양육행동은 전체 응답자의 중앙값(M=34.00)을 기준으로 중앙값 이상을 상집단으로 중앙값 미만을 하집단으로 하여 집단구분을 하였다.

청소년의 성별과 부모의 애정적 양육행동에

따른 배려심의 평균치는 Table 5와 같고, 이원변량분석결과는 Table 6과 같이 나타났다. Table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배려심에 대한 성별의 주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으나 애정적 양육행동(F=73.45, p<.001)의 주효과는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가 애정적 양육행동을 많이 하는 집단이 적게 하는 집단보다 배려심이 더 많음을 의미한다.

중국 중학생의 배려심에 대한 성별과 부모의 애정적 양육행동의 상호작용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성별과 부모의 애정적 양육행동의 상호작용효과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Fig. 2와 같다. Fig. 2에서 상호작용효과에 대한 구체적인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단순 주효과 검증을 한 결과 남학생의 경우 부모의 애정적 양육행동에 따른 배려심이 차이가 없지만 여학생(t=-8.47, p<.001)의 경우 부모의 애정적 양육행동에 따른 배려심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학생의 경우 부모가 애정적 양육행동을 적게 보일 때보다 많이 보일 때 타인에 대해 더 많이 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5. Mean of the care in Chinese middle school students according to the gender and parent's affectionate behaviors

Parent's affectionate behaviors	Gender								
	boy			girl			total		
	M	SD	N	M	SD	N	M	SD	N
Low	82.00	10.10	132	76.04	15.13	116	79.21	13.02	248
High	86.13	8.83	88	89.73	9.51	142	88.35	9.40	230
Total	83.65	9.80	220	83.57	14.09	258	83.61	12.29	478

Table 6. Two-way ANOVA of the care in Chinese middle school students according to the gender and parent's affectionate behaviors

Variables	df	Sum of Squares	Mean Square	F
Gender(A)	1	161.07	161.07	1.28
Parent's affectionate behaviors(B)	1	9183.02	9183.02	73.45***
A*B	1	2637.34	2637.34	21.09***
Error	474	59256.97	125.01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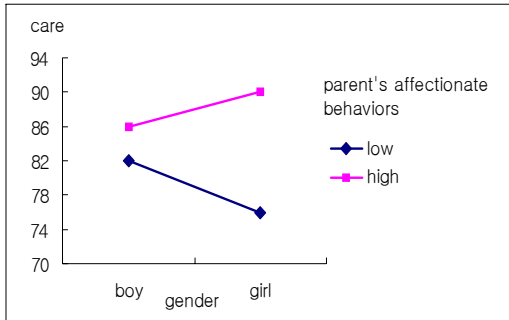


Fig 2. Interaction effect of the care in Chinese middle school students according to the gender and parent's affectionate behaviors

I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중국의 중학교 남·여 청소년 478 명을 대상으로 부모의 사회인구학적 배경에 따른 배려심의 차이를 알아보고, 배려심에 대한 성별과 성역할정체감, 부모의 애정적 양육행동 각각의 주효과 및 상호작용효과를 살펴보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본 연구의 목적에 따른 주요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논의를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의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중국 중학생의 배려심은 어머니의 직업 및 연령에 따른 차이가 유의미하였고 아버지의 직업, 부모의 학력, 아버지의 연령 및 월평균소득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 즉, 어머니의 직업이 무직일 때가 전문직 및 사무직일 때 보다, 노무직일 때가 사무직일 때 보다 중국 중학생의 타인에 대한 배려심이 더 많았다. 어머니의 연령은 46세 이상인 집단이 40세 이하인 집단 보다 중국 중학생의 타인에 대한 배려심이 더 많았다.

중국 중학생의 배려심이 아버지의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차이는 없고 어머니의 직업과 연령에 따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는 사회적으로 중국 여성들의 지위가 전반적으로 향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집안일과 자녀 양육에 대한 책임이 여성에게 더 많이 부과되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송유진(2005)은 중국이 여성의 높은 취업률, 전통적인 성역할 분리 가치관 약화, 상대적으로 짧은 노동시간, 그리고 한자

녀 갖기 정책으로 인하여 아버지들의 자녀양육 참여가 한국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중국 사회 안에서는 여전히 자녀양육의 주책임을 어머니가 맡고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아버지와 관련된 요인보다는 어머니와 관련된 요인이 자녀양육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한편, 어머니의 직업이 무직일 때가 전문직 및 사무직일 때 보다 타인에 대한 배려심이 더 많고, 노무직일 때가 사무직일 때 보다 타인에 대한 배려심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 결과는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집단이 대인관계 형성능력에서 부족한 경향을 보이고(양현정 2000) 친사회적 행동 능력도 떨어진다(황미숙 2005)고 보고한 연구결과들과는 일치하지 않는다. 중국은 사회주의 체제에서 교육의 목적이 부, 지위, 권력 등을 가질 수 있는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타인에게 봉사하기 위한 것이라는 사상을 주입시켰다. 노동을 무시하면 안 되고 관료와 노동자를 동일시하고 단결해야 한다고 하였으며 이는 문화혁명 이후 더욱 강화되었다(구자순 1990). 그러나 개혁 개방으로 시장경제체제가 도입되면서 계층 분화가 시작되었고, 사회적 지위가 수평적인 관계에서 수직적인 관계로 변화하게 되었다(강운옥 2004). 이러한 변화는 중국사회 구성원들의 생활방식이나 가치관의 다원화를 촉진하게 되었으므로(장공자 2006) 중국은 계층에 따른 인식 및 가치지향성이 다른 나라와는 차이가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신만수(1998)는 한국과 달리 중국의 경우 관리자가 작업자보다 개인주의 성향이 더 높은 반면 집단주의 성향은 더 낮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가치지향성은 부모의 자녀 양육가치관에 도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하류계층의 어머니들이 자녀 양육에 있어서 집단주의 성향에 따른 조화, 배려, 협력 등을 더 많이 강조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와 같이 어머니의 직업이 무직, 노무직인 청소년이 전문직 및 사무직인 어머니의 자녀 보다 배려심이 더 많을 것으로 추론된다.

둘째, 중국 중학생의 배려심에 대한 성별, 성역할정체감, 부모의 애정적 양육행동의 주효과는 성역할정체감과 애정적 양육행동의 주효과가 유

의미하였고 성별의 주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즉, 중국 중학생의 성역할정체감이 미분화일 때보다 양성성, 여성성, 남성성일 때 타인에 대한 배려심이 많고, 부모의 애정적 양육행동은 적을 때보다 많을 때가 타인에 대해 더 배려적으로 행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중학생의 배려심에서 성별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는 중국 청소년의 이타행동에서 성별차이가 없음을 밝힌 周志榮과 劉麗(2008)의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이러한 결과는 배려심이 생물학적 성에서 기인한 것이기 보다는 사회문화적 요인에 영향을 받아서 형성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Gilligan(1982)은 배려심에서의 성별 차이가 부모의 양육환경에서의 차이에서 기인한다고 보았다. 즉 남아와 여아는 부모와의 인간관계를 상이하게 경험하기 때문에 남자는 독립적, 개별화, 평등, 공정성을 강조하는 정의의 도덕성을 갖게 되는 반면, 여아는 애착, 인간관계, 상호의존성, 책임 등을 강조하는 배려의 도덕성을 더 강하게 지니게 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오늘날 한자녀가정이 보편화된 중국의 청소년들은 자녀의 성별에 따른 부모의 차별적 양육을 받지 않았고 공정한 교육기회를 누리며 남녀 구분이 감소한 세대이기 때문에 배려심에서의 성별차이가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중국 중학생의 배려심이 성역할정체감 및 부모의 애정적 양육행동과 관련이 있다는 결과는 중국 중학생의 배려심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성역할정체감 및 부모의 애정적 양육행동에 관심을 가져야 함을 시사한다.

일반적으로 양성적인 사람들은 긍정적인 정신 건강과 개인적 유능감을 촉진시키고(Bem 1975) 사회적 관계에서 더 유능하다(Heibrun 1986)는 연구들에 비추어 볼 때, 성역할정체감 중 양성성이 배려심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즉, 양성적인 사람은 능력 있고 대인관계가 원만하며, 적응을 잘하기 때문에 타인에 대해 더 많이 배풀고 배려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는 양성성 성역할정체감 뿐만 아니라 미분화를 제외한 남성성, 여성성 모두 배려심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2007년 유엔개발계획이

발표한 인간개발보고서를 보면, 평균수명과 문맹률, 취학률 등을 기준으로 매긴 중국의 남녀평등 지수는 157개국 중 73위이고 여성의 경제활동과 정책결정과정 참여를 평가하는 여성권한지수는 93개국 중 57위를 기록하였다(이은영·서운석 2008). 이는 중국이 문화혁명과 한자녀 갖기 정책으로 인하여 유교의 영향력과 전통적인 성역할 분리가 과거에 비해 약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영향력이 잔존함(구자순 1990; Weeks 1989)을 보여주는 것으로 중국 중학생은 남성성이든, 여성성이든, 혹은 양성성이든 뚜렷한 성역할정체감을 형성하게 되면 모순된 상황에 대하여 일관적인 태도로 대처하면서 적응할 수 있으나 미분화와 같이 성역할정체감이 뚜렷하지 않으면 모순된 상황에 대해 적응하지 못하고 가치관에 혼란이 야기되어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타인에 대해서도 배려적으로 행동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부모의 애정적 양육행동이 중국 중학생의 배려심과 관련이 있다는 결과는 부모의 양육행동을 애정적이고 수용적이라고 느낄수록 자신이나 타인에 대해서 적대 감정이 적고 이타행동을 많이 보이며(劉文·楊麗珠 2004), 높은 배려심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 결과들(김소영 2005; 황병위 1996)과 일치한다. 이는 부모의 따뜻한 사랑과 보살핌 속에서 자란 청소년들이 부모와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사랑과 수용, 안전의 느낌을 갖게 되고 타인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지각하게 되어 마음의 여유를 갖고 호의를 베풀며 타인에 대한 배려도 더 많이 하게 됨을 나타낸다.

셋째, 배려심에 대한 관련 변인들의 상호작용 효과는 성별과 성역할정체감, 성별과 부모의 애정적 양육행동의 상호작용효과가 유의미하였다. 즉, 남학생의 경우 성역할정체감이 미분화일 때보다 양성성일 때, 여학생의 경우 성역할정체감이 미분화일 때 보다 남성성, 양성성, 여성성일 때 타인에 대해 더 많이 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남학생의 경우 부모의 애정적 양육행동에 따른 배려심이 차이가 없지만 여학생의 경우 부모가 애정적 양육행동을 적게 보일 때보다 많이 보일 때 타인에 대해 더 많이 배려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중국의 여학생은 남학생보다 사회문화적 환경에 더 민감하게 반응함을 나타낸다. 중국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급격한 정치적이데올로기와 정권의 변화를 겪으면서 여성의 지위에서 많은 변화가 일어남(강윤옥, 2004)과 함께 여전히 유교전통적 사상이 잔존하여 중국 여성에 대한 이중적인 의식구조를 형성(구자순 1990; Weeks 1989)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의식구조에 남성보다는 여성들이 더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생각된다. 즉, 여학생들은 뚜렷한 성역할정체감을 갖고 부모의 양육행동을 애정적이라고 지각할 때 중국 사회의 여성에 대한 이중적 가치관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고 타인에 대해서도 배려할 수 있지만 성역할정체감이 미분화되어 있고 부모의 양육행동이 덜 애정적이라고 지각할 때는 이러한 이중적 가치관에 영향을 받아 위축되고 혼란스러움을 느끼므로 타인에 대해 배려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배려심에 대한 성별과 관련 변인들의 상호작용효과는 중국 중학생의 배려심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성별에 따라 달리 지도해야 함을 시사한다. 남학생의 경우 성역할정체감이 미분화일 때보다 양성성일 때 타인에 대해 더 많이 배려하고, 여학생의 경우 성역할정체감이 미분화일 때보다 남성성, 여성성, 양성성일 때 타인에 대해 더 많이 배려하게 되므로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지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부모의 애정적 양육행동은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의 배려심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여학생 자녀를 둔 부모는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할 때 좀 더 많은 애정적 태도를 보일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중국 중학생의 배려심과 관련되는 변인들을 살펴봄으로써 개혁개방과 산아감소정책으로 인하여 개인중심적 가치관이 추구되는 오늘날 중국 청소년들의 배려심을 장려하기 위한 관련 변인들을 이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추후연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배려심 관련 요인으로 성별, 성역할 정체감, 부모의

애정적 양육행동만을 살펴보았으나 청소년은 부모뿐만 아니라 또래의 영향에도 민감하므로 배려심과 관련되는 또래 요인에 대해서 탐색해보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둘째, 중국의 영토가 넓음을 감안할 때 연구대상자가 일정 지역에 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연구결과의 일반화에 무리가 있으므로 다양한 지역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할 것이 요구된다. 셋째, 본 연구는 부모의 양육행동을 측정함에 있어서 부모의 양육행동을 동시에 조사하였으나 정확한 측정을 위해 부모의 양육행동을 구분하여 각각 조사하는 것이 요구된다. 넷째, 본 연구는 중국 중학생 3학년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추후연구에서는 연구대상 연령층을 확대하여 연령 간의 차이를 살펴보거나 혹은 한국 청소년을 연구대상에 포함시켜 한, 중 양국 간 비교를 하는 연구도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승호·고인자(2003) 중·교교생의 도덕판단능력과 배려성 및 학업성취도간의 관계 분석. 사회과학 연구 42, 1-31.
- 강윤옥(2004) 최근 10년을 통해서 본 중국 여성의 지위변화 양상. 여성가족생활연구 8, 1-16.
- 곽경화·정옥분(2000) 보살핌 지향의 도덕성에 관한 연구. 아동학회지 21(2), 213-232.
- 구자순(1990) 중국의 가족개혁과 정치사회화. 중소 연구 14(1), 227-247.
- 국립국어연구원(1999) 표준국어대사전. 서울: 두산동아.
- 김경신·이선미(2007) 중국 조선족 기혼여성의 심리적 복지감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5(2), 119-131.
- 김소영(2005) 중학생의 배려심 : 요인구조 및 관련 변인. 창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문숙재·조성은(1999) 중국 가정학의 발달과 현황. 대한가정학회지 37(2), 73-83.
- 박병춘(1999) 보살핌윤리의 도덕교육적 접근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송유진(2005) 한국과 중국 도시가족에서의 성역할 분담 비교연구: 아버지의 자녀양육 참여를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39(1), 111-136.
- 신만수(1998) 동남아시아 관리자 및 근로자들의 가치 성향 연구. 한국학술진흥재단 연구결과논문.
- 안현지(1999) 부모의 양육태도와 정서 지능의 관계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양현정(2000) 유아의 사회적 발달을 위한 프로그램 이 저소득층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발달과 사회

- 적 덕목 수행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연주(2004) 부모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도덕성 발달과의 관계 연구. 광주교육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나현(1997) 배려의 윤리 관점에서 분석한 도덕 판단 지향성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사라·박혜원(2005) 부모, 또래, 교사가 아동과 청소년의 자아개념발달에 미치는 영향 : 중국 조선족과 한국 아동 및 청소년 비교. 대한가정학회지 43(5), 163-181.
- 이상우(1989) 도덕성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수연(2001) 배려윤리의 도덕교육론.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은영·서운석(2008) 한, 중, 일 3국의 성별 인식 차이에 대한 현황 분석. 한중사회과학연구 12, 161-187.
- 이재영(2007) 청소년의 문화성향에 따른 성역할정체감, 심리적 조망 및 도덕성 지향의 관계.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공자(2006) 중국의 사회구조변화와 여성 : 소강사회건설과 여성의 정치 사회참여. 국제지역연구 9(2), 412-435.
- 정미연(2000) 한국 고등학생의 배려지향적 도덕성과 정의지향적 도덕성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옥분·곽경화(2003) 배려지향적 도덕성과 정의지향적 도덕성에 관한 연구. 아동학회지 24(1), 1-20.
- 정진경(1990) 한국 성역할 검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5(1), 82-92.
- 최시원(1997) 부모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도덕적 판단력과의 관계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행정안전부(2009) '2009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 현황' 조사.
- 홍제성(2010) '자녀의 노예'된 중국의 젊은 부모. (2010. 01. 16).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society/index.html>
- 황미숙(2005)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어머니 양육태도 유형에 따른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황병위(1996)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양육유형과 아동의 도덕성 발달과의 관계.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Bem SL(1975) Sex role adaptability : One consequence of psychological androgyn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1, 634-643.
- Gilligan C(1982) *In a different voice : Psychological theory and women's development*.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Heibrun AB(1986) Androgyny as type and androgyny as behavior : Implications for gender schema in males and females. *Sex Roles* 14, 123-139.
- Hurlock EB(1978) *Child development*. New York: McGraw-Hill.
- Pleck JH(1975) The dating experience for adolescent girls. *Adolescence* 38, 157-173.
- Söchting I, Skoe EE, Marcia JE(1994) Care-oriented moral reasoning and prosocial behavior : A question of gender or sex role orientation. *Sex Role* 31, 131-147.
- Walker LJ(1989) A longitudinal study of moral reasoning. *Child Development* 60, 157-166.
- Weeks MR(1989) Virtuous wives and kind mothers : Concepts of women in urban China. *Women's Studies International Forum* 12(5), 505-518.
- 上海社會研究院(1995) 個人他人關契研究報告書.
- 周志榮·劉麗(2008) 兒童利他行為發展研究的新發展. *教育理論與實踐* 28(3), 103-104.
- 劉文·楊麗珠(2004) 社會抑制性與父母教養方式對幼兒利他行為的影響. *心理發展與教育* 1, 6-11.